

June. 2025

HANARO

ETF
Monthly

01. HANARO Insight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와 K-원전의 투자기회

02. 6월 추천상품

HANARO 원자력iSel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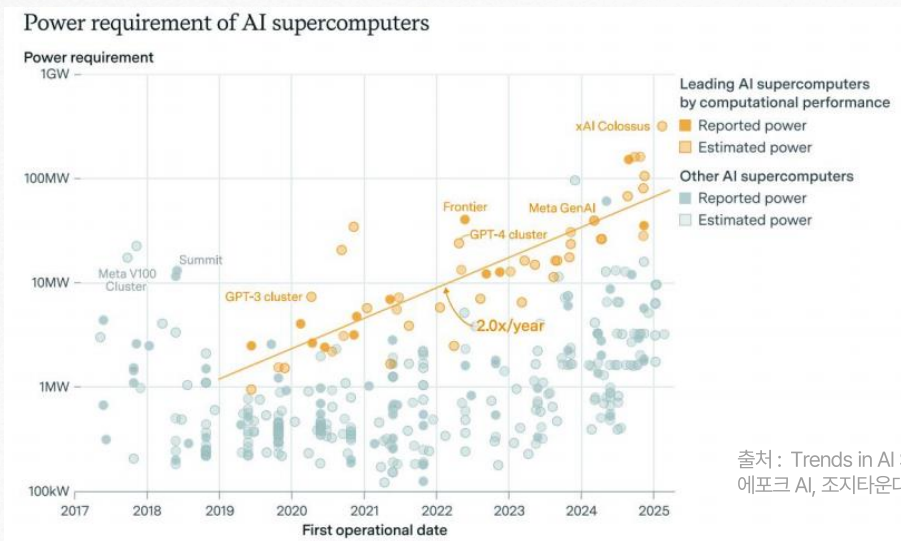
03. HANARO ETF 수익률 TOP5

04. HANARO ETF League Table

AI전력수요 폭증 원자력 중요성 부각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전례 없는 발전으로 전력 인프라의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AI가 확대되며 변압기, 전력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오픈 AI의 샘알트먼도 "AI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통해 AI컴퓨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AI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최근 일론머스크의 xAI가 구축한 첨단 AI데이터센터인 콜로사스(Colossus)는 300MW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25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달합니다. 게다가 연초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5,000억달러를 투입하여 AI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자할 것을 예고한 상황으로, 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처 : Trends in AI Supercomputers
에포크 AI, 조지타운대학교, RAND 공동 연구

이러한 전력 수요의 폭증은 현재의 전력 공급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규모 전력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 "원전 없인 AI 못한다"... 엔비디아 젠슨 황, 탈원전 대만에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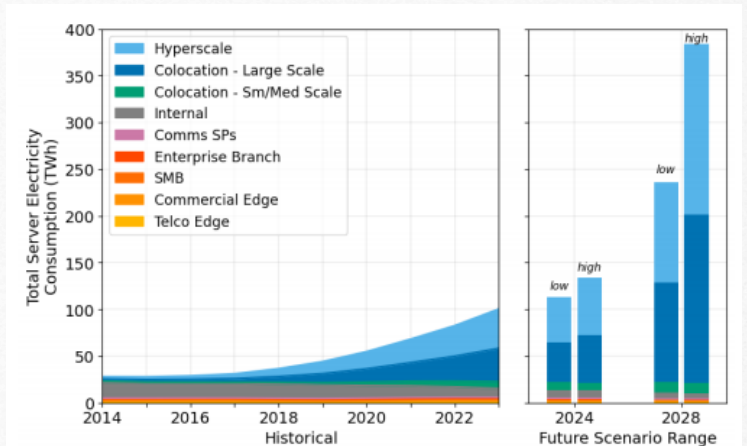
대만 AI포럼서 "정부, 원전에 투자해야"
TV 인터뷰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에너지 공급"



출처 : 조선일보

■ 데이터센터 종류별 전력수요 전망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은 2023년 약 100TWh에서
2028년 240TWh~38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트럼프 대통령
원자력발전
확대 선언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며,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약 40년 이상 유지해 온 탈원전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원전 시장 확대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트럼프 행정명령 주요 내용

원자력 발전 촉진
Reinvigorates the Nuclear Industrial Base

-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수요에 맞춰 우라늄 농축확대
- 2030년까지 기존 원자로 용량을 5GW로 증대하고 신규 대형원자로 10기 건립
- 원자력 관련 R&D인프라의 접근을 지원 및 교육, 실습 프로그램 확대로 전문인력 양성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
Deploys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 국가 안보 및 AI인프라 확보를 위해 원자력 기술 활용, 원자력산업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국방부 산하의 군사기지내의 원자로 가동, 에너지부 산하 원자로의 핵심방어시설 지정 등
- 미국 원자력의 글로벌 상업화, 원자력 수출 촉진 등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 개혁
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NRC의 임무에 원자로 안전 보장과 함께 원자력 발전 촉진을 포함. 원자로 허가 및 규제 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원자력 발전의 이점을 고려하도록 명시
- 기한 단축: 신규 원자로 건설 및 운영허가는 18개월, 수명연장 허가는 1년 이내로 기한 설정

에너지부 원자력 시험 간소화
Streamlines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epartment of Energy

- 미국 에너지부 (DOE)의 관할권 확대
- 첨단 원자로의 검토, 승인을 신속화. 신청 후 2년이내에 시험용 원자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
- 26년 7월까지 최소 3개의 원자로 건설을 위한 별도 예산 배정

The WHITE HOUSE: 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H-Amundi자산운용 정리](#)

유럽,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

유럽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탈원전을 추진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며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프랑스는 일찍이 원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 우리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한다 " 고 선언하며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주장하였으며, 2040년까지 6~9GW의 신규원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국 또한 민간 원전 로드맵을 통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수십년에 걸친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과거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국가들의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스웨덴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으나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벨기에 역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전 2기의 가동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기존의 정해진 원전 폐쇄 계획도 2년 미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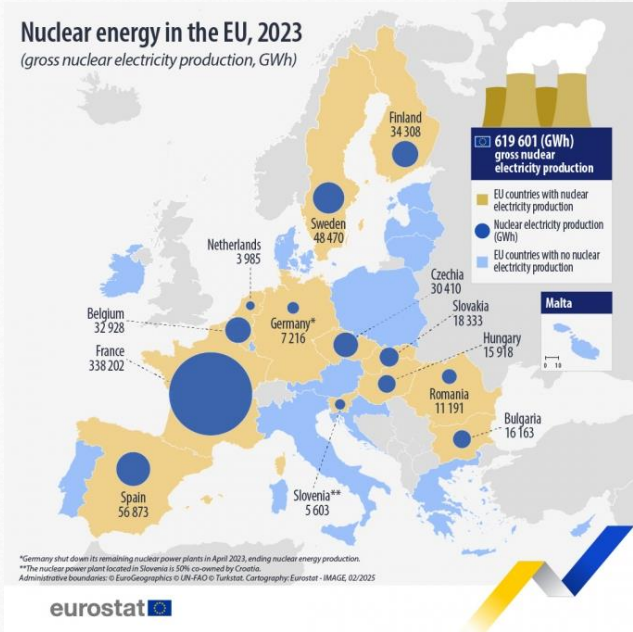
이처럼 유럽 각국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안정적이고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친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정책

프랑스	2050년까지 EPR2 14기와 SMR 15기 건설을 포함, 총 23GW 규모의 원자력 용량 확보 목표
체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5.9GW 달성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 개정안 승인
폴란드	2043년까지 6~9GW원자력 도입
핀란드	신규 대형원전 및 SMR 건설방안 검토
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허용,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 건설 및 2045년까지 최대 10기 대형원전 추가
영국	영국 정부 주도 원전건설 위해 부지 매입
이탈리아	2025년까지 원자력 기술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령 개정 추진

출처: KB증권, 키움증권,NH아모디 정리

■ 유럽의 원자력 발전 현황



출처: Eurostat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와 K-원전의 투자기회

K-원전에
큰 기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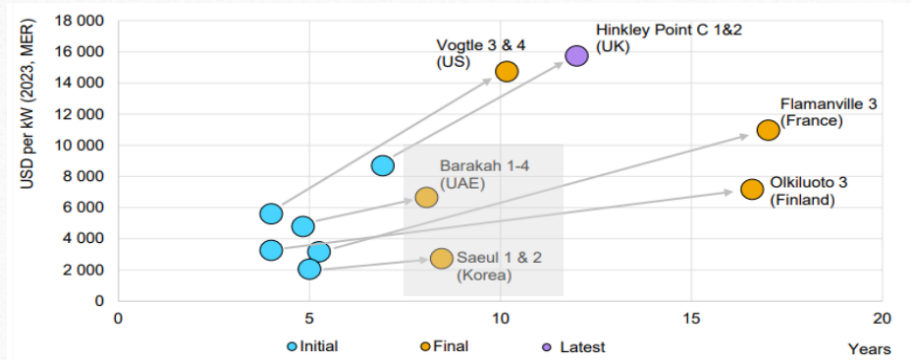
원전 건립은 건설기간만 5~10년에 달하고, 공정관리, 기자재조달,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원전 시공에 차질이 빚게 되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유럽에서는 원전의 건설 지연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상당한 지연으로 급격한 비용 상승의 문제를 나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를 완수할 인력 및 공급망 관리, 공정관리 등에서 역량이 저하된 것으로 주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공 및 프로젝트 관리능력은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30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통해 표준화된 시공 역량과 안정적인 설비 조달능력을 갖췄으며, 이를 바탕으로 UAE 바카라 원전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UAE바카라 원전은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건설, 인력교육까지 전과정을 통합 수행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KB증권 2025.05.21 인용)

복잡한 공정을 관리하고 일정을 준수하는 국내 원전기업의 능력은 현 시점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원전산업의 TSMC라고 불리는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비롯, 세계적인 원전 시공능력을 보유한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기업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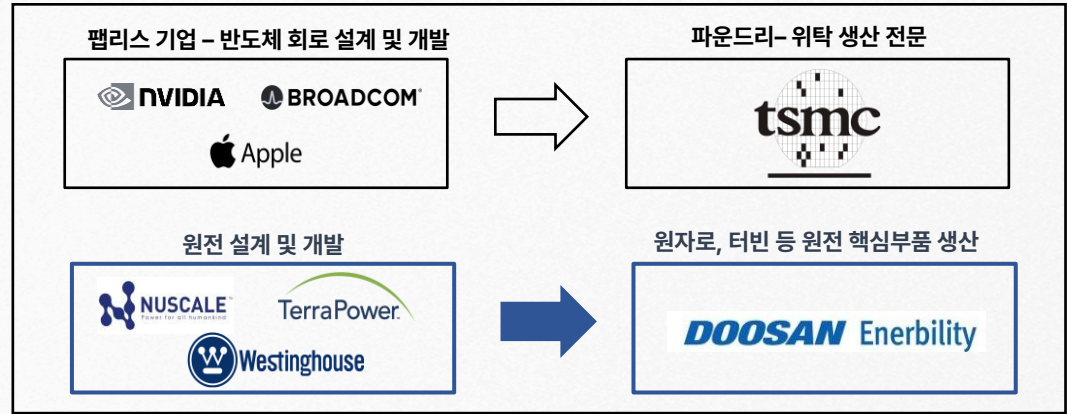
■ 주요 원전 프로젝트의 초기 예상대비 실제 건설기간 및 비용 (음영부분이 한국이 건설한 원전)



출처: IEA, 키움증권

■ 원전의 TSMC라고 불리는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전 주기기 생산분야에서 30년 이상 누적 기술력과 노하우로 글로벌 원전 기자재 생산의 핵심기업으로 부각
원전 및 SMR 개발기업은 주기기 생산을 두산에너지빌리티에 위탁생산. 원전산업의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음



자료: NH-Amundi자산운용

투자포인트

- AI발달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 저탄소 에너지원 및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장점 부각
- 미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 4배 확대 등 주요 국가의 원전 확대 정책 가시화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특징
1	두산에너지빌리티	22.4	발전설비·원전·SMR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
2	현대건설	14.8	국내외 플랜트·인프라·주택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건설사
3	한국전력	13.8	국내 전력 독점 공급자로 송배전과 전력계통 운영 담당
4	LS일렉트릭	12.2	전력기기·자동차 솔루션 기반 산업용 전력설비 전문업체
5	HD현대일렉트릭	9.7	중저압 전력기기,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전기 기업
6	효성중공업	8.4	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기 및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전개
7	한전KPS	3.0	발전소 설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발전소 유지보수 수행
8	대우건설	2.6	주택, 토목, 플랜트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주요 건설사
9	신일전기	2.5	변압기·개폐기 등 수배전반 제조 및 산업현장 설비 납품 기업
10	한전기술	2.4	원자력·발전 플랜트 설계·감리 수행하는 한전 계열 전문 기술사

기준일 25.05.30, 한국펀드파트너스

수익률

수익률					
1M	3M	6M	1Y	YTD	설정이후
29.9	15.4	37.8	46.6	47.9	141.2

기준일 25.05.30, 신한아이타스

기본정보

종목명	HANARO 원자력iSelect				
종목코드	443730				
상장일	2022.06.28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기초지수: iSelect 원자력지수				
설정단위	1CU 당 50,000좌				
수탁/사무	하나은행, 한국펀드파트너스				
총보수	운용	지정참가	수탁	사무	
0.45%	0.36%	0.05%	0.02%	0.02%	

HANARO ETF 수익률 TOP5(3개월)

기준일: 2025. 05. 30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원자력iSelect 3M 수익률 +34.67%	종목코드: 434730 규모: 1315억 상장일: 2022-06-28	- AI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원전 수요 확대 - 저탄소 에너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주요 국가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
HANARO K-뷰티 3M 수익률 +28.30%	종목코드: 479850 규모: 121억 상장일: 2024-04-16	- K-뷰티 글로벌 성장세 지속 - 화장품에서 미용의료로 확산되는 K-뷰티 열풍 - K-뷰티 대표 화장품, 피부미용, 필러, 보톡스 기업에 투자
HANARO Fn조선해운 3M 수익률 +26.88%	종목코드: 441540 규모: 252억 상장일: 2023-04-18	- 조선업 수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확대 - 트럼프 시대, 중국을 견제할 전략자산으로 부각 - 국내 최초의 조선해운 ETF
HANARO CAPEX설비투자 3M 수익률 +19.57%	종목코드: 454320 규모: 252억 상장일: 2023-04-18	- 글로벌 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 확대 추세 - CAPEX 설비투자 확대 섹터 집중 투자 5개 세부테마(전력&건축설비, 공장기계, 풍력, 원자력)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3M 수익률 +19.07%	종목코드: 473640 규모: 98억 상장일: 2024-01-18	- 금 가격에 우호적인 환경 지속 - 영업 레버리지를 통해 금가격 상승시 높은 수익 추구 - 한국형 GDX, 글로벌 금채굴기업을 대표하는 인덱스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HANARO ETF League Table

기준일: 2025. 05. 30

구분	ETF 명칭	순자산총액 (억원)	성과			
			1M	3M	6M	1YR
시장 대표	HANARO 200	3,570	6.28%	8.44%	12.42%	2.73%
	HANARO KRX300	67	5.88%	7.01%	11.65%	1.51%
	HANARO 코스닥150	143	2.05%	-5.42%	5.40%	-9.59%
	HANARO 200TR	960	6.27%	8.40%	12.37%	2.66%
	HANARO MSCI Korea TR	357	4.65%	5.52%	8.84%	-2.01%
	HANARO 200 TOP10	112	1.10%	-1.19%	-0.87%	-4.52%
	HANARO 미국S&P500	107	3.37%	-4.68%	-2.27%	12.76%
채권	HANARO KAP초장기국고채	49	-2.31%	-0.70%	0.95%	13.60%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498	-1.40%	0.19%	1.44%	10.40%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892	-0.67%	0.42%	1.75%	8.10%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762	0.29%	0.81%	1.72%	3.16%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1,122	0.25%	0.83%	1.76%	2.33%
기타	HANARO KOFR금리액티브(합성)	119	0.23%	0.70%	1.48%	3.26%
	HANARO CD금리액티브(합성)	39	0.20%	0.64%	1.39%	3.10%
테마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51	1.89%	3.82%	-0.50%	-5.93%
	HANARO e커머스	452	3.55%	4.61%	10.88%	6.38%
	HANARO 고배당	89	6.34%	12.92%	8.97%	21.55%
	HANARO 글로벌렉셔리S&P(합성)	205	3.44%	-8.75%	3.14%	1.16%
	HANARO Fn5G산업	56	4.14%	-1.32%	3.73%	-10.05%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304	-2.99%	-12.66%	-10.04%	-10.1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80	5.77%	7.52%	12.27%	0.93%
	HANARO Fn전기&수소차	140	0.64%	-7.14%	-3.90%	-22.14%
	HANARO Fn친환경에너지	49	3.42%	-0.16%	3.17%	-23.31%
	HANARO Fn K-반도체	2,157	5.89%	-1.06%	14.72%	-19.43%
	HANARO Fn K-게임	119	2.27%	1.69%	-9.81%	-2.26%
	HANARO Fn K-POP&미디어	611	3.80%	4.72%	21.09%	21.45%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63	3.67%	-2.13%	2.64%	-9.94%
	HANARO Fn K-메타버스MZ	52	0.38%	-0.65%	1.57%	-3.79%
	HANARO Fn골프테마	29	16.40%	23.27%	33.32%	25.95%
	HANARO 미국메타버스iSelect	41	6.00%	-0.51%	5.07%	17.53%
	HANARO 글로벌워터MSCI(합성)	87	1.54%	2.61%	2.52%	11.30%
	HANARO 글로벌백신치료제MSCI	15	-4.78%	-14.04%	-8.17%	-12.86%
	HANARO 원자력iSelect	1,315	26.53%	34.67%	48.72%	45.48%
	HANARO Fn K-푸드	308	1.17%	10.69%	19.45%	11.72%
	HANARO Fn조선해운	782	9.11%	26.28%	59.62%	106.52%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545	17.73%	19.57%	39.54%	19.75%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341	11.12%	5.00%	6.52%	34.52%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	66	13.33%	1.64%	5.37%	2.31%
	HANARO 미국애그테크	18	5.91%	1.49%	1.39%	13.88%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98	0.22%	19.07%	33.62%	42.75%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37	-1.57%	-10.06%	9.51%	-41.07%
	HANARO K-뷰티	167	11.50%	28.31%	46.01%	11.49%
	HANARO 주주가치성장코리아액티브	143	7.94%	10.22%	8.67%	8.61%
	HANARO 전력설비투자	160	19.79%	15.90%	39.92%	33.37%
	HANARO 코리아밸류업	233	6.75%	9.87%	14.95%	11.84%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	79	2.98%	3.29%	17.67%	14.06%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237	4.80%	18.36%	18.36%	18.36%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다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Tracking Error)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원화 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 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 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외국 통화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 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 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의 수익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SNS에서 ETF추천 영상, 추천 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NH-Amundi자산운용에서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 및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587호(2025.06.04~2026.06.03)